

12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빅3 구제 기대’ [다우: 8,419.09pt (+ 3.31%)]	주요 지수가 일제히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뉴욕 주식시장이 일제히 반등. 전날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주요 지수는 미국 자동차 ‘빅3’의 11월 매출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보험권까지 밀려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반등, 일일 최고점 수준에서 장을 마감.
[WTI: \$46.96 (-\$2.32)]	글로벌 경제의 동반 후퇴(recession)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되었음. 전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이 미뤄진 여파로 9.4% 폭락했던 유가는 이날 오전 반등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수요 감소 전망으로 되밀려났음. 이로써 유가는 지난 7월 14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불과 4개월만에 68% 추락했음.
빅3 ‘상승’..車판매 최악’ 불구 ‘구제 기대’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F)가 11월 자동차 판매실적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 기대감에 힘입어 각각 5.7%, 6.3% 올랐음. GM은 이날 18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며, 자구책으로 고효율 차량 생산 확대와 최고경영자(CEO) 연봉 1달러로 삭감, 종업원에 대한 임금 및 복지후생 축소 등을 제시함. 포드는 9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며, 자구책으로는 역시 CEO 연봉 1달러로 삭감, 종업원 보너스 삭감, 전용항공기 5대 매각 등을 제시했음.
GE·야후 급등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3.6% 급등했음. GE는 이날 실적전망과 내년 배당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GE 캐피탈의 구조조정안까지 내놔음. 야후(YHOO)는 아메리카온라인(AOL)의 조나단 밀러 전 CEO가 지분 전체 또는 일부 인수를 위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로 7% 상승함.
연준, 긴급대출제도 시한 3개월 연장	연준은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실시중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시한을 내년 4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밝혔음. 연준은 성명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달러, 엔대비 강세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엔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음. 뉴욕 증시가 반등 랠리를 펼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확산 관측에 무게가 실린 결과임. 오후 3시23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93.36엔으로 전일대비 0.1655엔(0.1776%) 상승했음.

제목	주요 내용
유럽 증시 반등.. '실적 + M&A 호재'	뉴욕 증시가 반등 랠리를 펼친 가운데 영국 테스코의 실적 호조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인수합병(M&A) 기대가 호재로 작용. 유가의 반등으로 에너지주도 강세. 영국 FTSE100 지수는 4,122.86으로 전일대비 1.4%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는 3,152.90으로 2.4% 상승. 독일 DAX30 지수는 4531.79로 3.1% 전진.
日銀, 기업대출 지원 방안 발표	일본은행은 2일 긴급 금리정책회의를 갖고 내년 1월9일부터 BBB 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시중은행이 담보로 제시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정. 일본은행은 또 내년 4월30일부터 회사채를 통한 별도의 머니마켓 활성화 방안도 시행할 계획.
日銀, 기준금리 0.3% 동결	일본은행(BoJ)이 2일 긴급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오버나잇금리를 현행 0.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캠코, 부실채권 매입 대비 조직개편	외환위기 직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채권 처리에 나섰던 캠코가 최근 부실채권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단행. 경기침체로 기업부도가 잇따르고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캠코가 전면에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내년 성장률 급락, 기업이익에 '쇼크'우려	내년도 한국의 GDP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기업들의 이익이 역(逆)성장을 보일 것으로 우려. 이는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
내년 상반기까지 실물 경기 악화 지속	민간 소비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봄. 실물 지표 악화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재정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인데 재정집행이 집중돼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악화될 전망.
11월말 보유액, 전월비 117억달러 감소한 2천 5억달러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전월 대비 117억 4천만달러 줄어든 2천5억 1천만달러 보유액은 외환당국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현물환시장 개입, 기타통화표시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감.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